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지난해 위반 신고 건수 ‘역대 최저’

권익위, 공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공공기관 대부분 체계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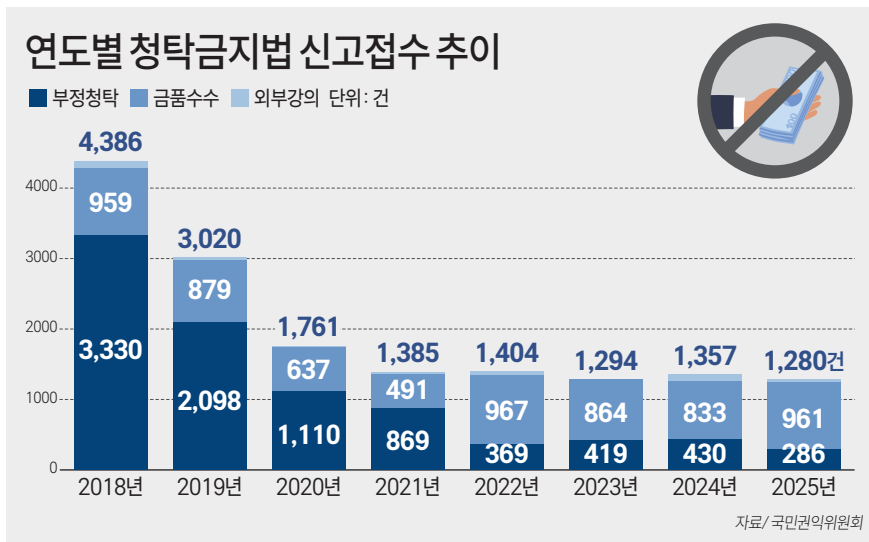
지난해 신고 건수 1280건 집계
제재 누적 인원 95% ‘금품 수수’
국민 87%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제도가 공공기관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제재 인원의 절대다수가 여전히 ‘금품등 수수’로 처벌 받고 있어 관련 관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 동안 각급 2만 4000여 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률은 99.6%에 달했고,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한 기관도 97.8%를 기록해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5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제재 인원 역시 340명으로 2024년 대비 23.8%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누적 신고 건수는 총 1만 7455건으로,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9346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등 수수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2%) 순이었다.

반면 실제 제재로 이어진 누적 인원(총 2983명) 중에서는 ‘금품등 수수’가 2828명으로 전체의 94.8%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2025년 단년도 기준으로도 금품등 수수 신고가 전체의 75.1%, 제재 인원의 95.3%를 차지했다. 이에 권익위는 매년 실시하는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설명회에서 금품등 수수 위반 및 처벌 사례를 집중 전파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2025년 접수된 신고처리 사건 중 과태료 통지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건 7건이 확인됨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2819명 응답)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1%에 달했다. 직무수행 공정성 개선 분야는 행정(75.4%), 교육(72.9%), 언론(56.8%) 순으로 높게 평가됐다. 다만 향후 개선과제로는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61.4%)가 가장 많았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신고건수, 제재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공공기관별 제도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한전기술, ‘올해의 발전소’ 수상… 인니 전력난 해소

인니 ‘엔릿 아시아 2026 어워즈’
동남아 시장 후속 사업 수주 박차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이 인도네시아 도서지역 전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아시아 최고 권위의 전력인프라 어워즈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입증했다.

한전기술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ICE BSD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엔릿 아시아 2026 어워즈(Enlit Asia 2026 Awards)’에서 ‘썬바와-2(Sumbawa-2) 및 토벨로(Tobelo) 이중연료(Dual-Fuel) 엔진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올해의 발전소(Power Plant Project of the Year)’ 부문 본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은 발주처인 인도네시아전력공사(PTPLN), 주기기 공급사 핀란드 바르질라, 현지 시공을 맡은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 아디카르타와 한전기술이 ‘윈팀’으로 협력해 거둔 성과다. 한전기술은 사



한전기술이 엔릿 아시아 2026 어워즈에서 ‘올해의 발전소’ 부문 본상을 협력 기관과 함께 공동 수상했다. /한전기술

업 과정에서 주기기 조달·운송 및 사업관리를 총괄했다.

썬바와-2(30MW) 및 토벨로(30MW) 발전소는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던 인도네시아 동부 도서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 분산형 전원 프로젝트다. 한전기술은 2023년 11월 본계약 체결 이후, 열악한 해상 운송로와 도서 인프라 등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고효율 이중연료 엔진 패키지의 운송과 설치를 차질 없이 완료했다. 이어 2026년 상반기 운전적합성 인증과 성능시험을 완벽히

통과하며 기술력과 계통 안정성을 과시했다.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은 “이번 수상은 한전기술의 사업관리와 엔지니어링 역량을 국제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전력공사를 비롯한 현지 파트너사들과의 신뢰를 더욱 다지고,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복합화력·해상풍력 발전과 전력망 확충 등 후속 사업 수주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진청-멕시코, 농기계·벼 품종 개발 추진

INIFAP와 농업 기술협력 ‘맞손’

농촌진흥청이 멕시코와 농기계 현지화 및 벼 품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후 공동의 연구 성과를 국내 농기계 업체와 중남미 시장 진출과 연계한다.

농진청은 지난 23일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 국립산림농업축산연구청(INIFAP)과 농업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INIFAP은 국가연구기관으로, 멕시코의 산림·농업·축산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내년 ‘멕시코 중·소농을 위한 한국 중소형 농기계의 현지화’와 ‘멕시코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내건성 벼 품종 및 재배 기술 개발’ 등 2개 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MOU에는 이송돈 농촌진흥청과 INIFAP의 알레한드로 에스피노자 칼데론 청장이 서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부산 크루즈 체류형으로 진화

부산항만공사 ‘오버나잇 크루즈’
총 8항차 운영 성료… 5901명 탑승
글로벌 선사 대상 마케팅 지속 확대

부산지역 크루즈 관광이 시너지를 몇 시간 둘러본 뒤 일몰 전 귀선하는 기존 ‘기항형’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체류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4일 압항한 아자마라퍼슈트호까지 ‘2026 부산항 오버나잇(밤을 넘기는) 크루즈’ 총 8항차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오세아니아크루즈와 리츠칼튼요트컬렉션, 포낭, 씨본, 더월드, 아자마라 등 글로벌 럭셔리 크루즈선의 오버나잇 압항이 이어졌다. 특히 이달 18일에는 2박3일 일정의 더월드호와 1박2일 일정의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가 동시에 부산항에 머물며 늦은 밤까지 북항크루즈터미널 주변을 밝혔다. 두 선박 승객 중 470여 명이 부산시내 야간관광을 즐겼다.

더월드호를 포함한 다수의 럭셔리 크루즈선들은 그간 부산에서 보다 긴 시간 머물며 관광할 수 있도록 1박, 2박 등 장기체류 형태의 부산항 기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공사는 세관·출입국심사·검역(CIQ)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터미널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또 야간시간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부산항을 찾은 오버나잇 크루즈에는 포함 5901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70명이 밤 10시 이후까지 부산 관광에 나서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오버나잇이 단순히 선박이 항만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넘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관광·소비와 연결할 수 있는 체류형 크루즈 모델로 발



이달 24일 밤 부산항 북항 크루즈터미널에 ‘아자마라퍼슈트호’가 접안해 있다.

/부산항만공사

전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올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선사 대상 마케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 20항차 이상의 부산항 오버나잇 크루즈 압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아자마라, 포낭, 리츠칼튼요트컬렉션, 실버씨 등 럭셔리 크루즈 선사들의 오버나잇 일정이 10항차 내외로 예정돼 있다. 올해 부산항 오버나잇 일정이 없었던 실버씨의 경우, 공사가 지난 8월 미국·유럽에서 추진한 타겟마케팅을 통해 2027년 실버클라우드호 2항차와 실버뮤즈호 1항차 등 총 3항차의 오버나잇 크루즈 일정을 확정했다.

공사는 오버나잇 크루즈 유치로 승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이를 준모항과 모항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부산항 크루즈 산업의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올해 부산항에서 8항차의 오버나잇 크루즈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출입국·세관·검역 등 CIQ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였다”며 “이러한 긴밀한 협력체계가 글로벌 선사와 고객이 부산항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교부금 개편안 두고 교육·노동계 공동대응

서울시교육청-민주노동 정책간담회
정근식 “충분한 검증·대화 필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에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편 산식의 근거와 중장기 재정 영향을 따져 보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노동계 관계자들도 개편안의 원점 재검토와 공론화 절차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등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8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민주노동 정책간담회’에 대한민국의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엄길용 전국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 위원장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21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

부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조중고 교육 예산으로 배분해 온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학생인구 감소 등 달라진 교육여건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달 3일 관련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공청회를 열고 심의에 들어갔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같은 속도로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도 계속 늘고 있다며, 기초학력, 특수교육, 돌봄·늘봄, 학생 마음건강과 안전, AI·디지털 교육 환경, 노후 학교 개선 등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워 2030년에는 해당 항목에서만 약 3500억원의 부족분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등 국가 정책사업으로 당초보다 추가 부담하게 된 재원도 966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편안을 마련한 기획예산처를 향해서도 달라진 학교 현장의 모습을 직접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